

절망사(Deaths of Despair) 개념 및 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강 상 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문초록

절망사는 누적된 박탈을 배경으로 저학력 중년 백인 남성에게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자살 등의 삶의 부정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회적 현상의 정의이다.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절망사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적 맥락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자살, 알코올 및 약물 오남용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 영역에서 구분되어 이루어질 뿐이며 대부분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에서만 조망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절망사 연구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그 추이와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선택하여 총 49편의 국외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절망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책임성과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절망사, 알코올, 약물남용, 자살, 체계적 문헌고찰

* 주저자, ks9629@mail.knou.ac.kr

1 서론

20세기 후반, 소득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선진국을 필두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기대수명을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기대수명의 증가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연속적으로 기대수명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디턴(Deaton)과 케이스(Case)는 약물중독, (알코올에 의한) 간 질환, 자살 등이 사망률 증가의 배경임을 밝혀내고 3대 요인과 관련된 죽음을 절망사(Deaths of Deapair)로 명명하게 된다 (Case et al., 2020).

디턴과 케이스가 제시하는 절망사의 핵심적 논의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특정 계층에게 절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화는 저학력·저숙련 노동, 아웃소싱, 자동화, 세계화 등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절망사적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가들에서 짚어보아야 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다. 유럽사회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Becchetti et al., 2022)는 저학력, 저소득, 저숙련, 빈약한 사회적 관계성, 고소득에 대한 기대감, 삶에 대한 실패감과 충격 등이 절망사와 강력한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절망사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현상, 절망사의 개념 등을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학문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최고 수준의 자살률, 부의 양극화 등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수축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홍성국, 2018). 한국 사회가 절망사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자살률은 1990년대부터 OECD 평균을 상회하였고, 2021년도 WHO 자료 기준으로 30대와 40대, 60대와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2021).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 수는 4,910명이다. 2000년도에 2,69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알코올 중독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알코올 중독 추정 환자수가 약 152만명에 이르지만(87만 명 정도는 알코올 남용, 65만 명은 알코올 의존) 지역사회에서 등록·관리되는 비율은 0.59% 불과하다.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 재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한의신문, 2021/10/18).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 역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강은영·조소연(2014)의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3,930명 중 9.2%인 361명 정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10,000~15,000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대검찰청, 2019).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이 배경이 되어 청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거나 마

약류 중독이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요인들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이를 개념화시킨 절망사에 기반한 학문적 접근과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절망사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날 우려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1/07/10, 18; 중앙일보, 22/07.20, 28).

디턴과 케이스의 ‘Deaths of Despair’ 개념은 최근 하나의 연구 경향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망사가 특정 국가나 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회가 지닌 거시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도 연구 동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자살 등의 분야에 관한 연구 동향 탐색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김대권, 2023; 김정숙 외, 2023; 김진주 외, 2023; 박성수, 2023) 절망사 관점으로 접근한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절망사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절망사 문제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기본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술적 동향 탐색의 시도는 절망사에 대한 초기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향후 절망사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절망사 관련 이론적 논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망률의 감소는 사회의 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 기술의 발전, 서비스 수준의 향상, 예방적 차원의 행위 증진, 건강 관련 정보의 보급 등은 사망률 감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Ford ES et al., 2007) 예측 가능한 경향성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디턴이 미국의 사망률 추세를 연령과 인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존 보고와는 다른 양상을 파악하게 된다. 첫째, 백인의 사망률과 유병률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간을 설정하여 사망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폐암과 당뇨 등의 일반적 질병의 사망률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독과 자살, 만성적 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였다. 둘째, 고졸 이하 집단에서 중독, 자살, 간 질환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Olshansky et al., 2012; Chase et al., 2013). 셋째, 인종적으로 흑인 사망률이 낮아지는 반면, 백인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약물, 알코올,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뚜렷하다. 넷째, 소득을 기반으로 사망률을 설명하거나 관계성을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 더 심각한 소득감소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인종적으로는 백인, 연령대로는 중년,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의 인구사회학적 집단에서 약물, 알코올,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턴은 이런 경향성을 누적된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의 결과라고 분석한다(Case et al., 2017). 1970년대 초반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에 진입한 인구집단이 산업사회의 변화와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용기회 박탈, 이혼, 자녀와의 관계 악화 등 여러 차원의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전 세대에서 나타났던 제조업 종사, 노동조합 가입, 연대성 강화 등의 계급적 경향성이 사라지면서 사회경제적 지지 기반이 약화된 것이다. 노동시장 악화, 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이는 결혼 또는 친밀한 동반자 관계의 형성, 자녀 양육을 위한 기회 등을 박탈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 학위 이상의 남성들과 달리, 고졸 이하 남성들에게서 결혼을 감소, 이혼을 증가, 동거·혼외 자녀의 증가 현상이 커지고 자녀와의 연결성이 약화되는 등 불안정한 가족 구조의 중심에 놓여지는 현상이 인구집단의 특징으로 고착된다. 디턴과 케이스의 이러한 분석에는 뒤르켐(Durkheim)의 이론적 논의가 뒷받침하고 있다. 물질적, 사회적 상황이 기대 수준보다 낮을 때 절망하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이끈다. 자살을 통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 과음·흡연·약물남용 등의 중독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 심장질환 예방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 등의 행위와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인해 영향이 나타난다. 근거에는 사회적, 경제적 붕괴가 자리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절망사 개념은 미국에서 특정 계층(중년 백인)에게 발현되는 누적된 박탈을 배경으로 다양한 삶의 부정적 행동(알코올, 약물남용과 자살)이 나타난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현상의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므로 절망사의 개념과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논증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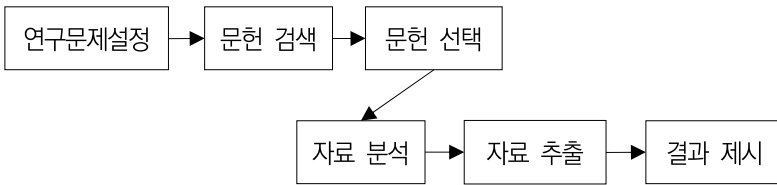
3 연구방법

1. 연구절차와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절망사 연구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그 추이와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식을 활용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최신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적합한 연구 결과를 최대한 종합·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크게 연구문제 설정, 문헌검색, 문헌선택, 자료분석과 자료추출, 결과제시로 구분될 수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전반에서 편향(bias)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음과 같이 있다. 첫째, 연구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둘째, 고찰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셋째, 고찰의 대상이 부적절한 경우 넷째,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연구를 포함하지 않거나 혹은 포함하지 말아야 할 연구를 포함한 경우 등에 비뚤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의 편향인 비뚤림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의 지침에서는 연구의 기획, 연구 계획서 작성, 자료 분석과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상호 독립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표준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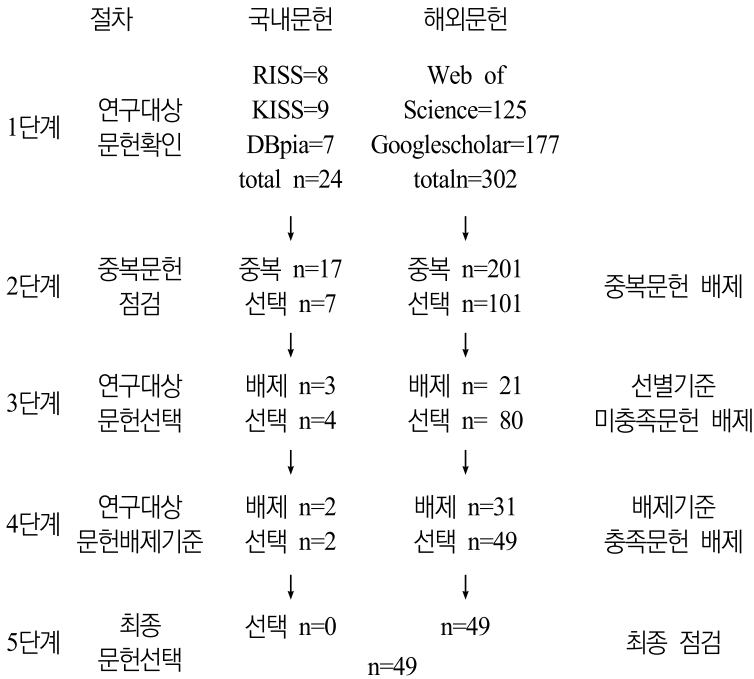
절차에 맞춰 문헌 고찰의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선택과 배제의 기준을 정해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김수영 외, 2011). 이는 수집된 자료가 연구 영역에 맞는가,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가 고찰 목적에 부합되는가 등 선택·배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분석대상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정진석 외,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의 전 과정을 다수의 연구자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자료선택과 배제의 기준을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설정하여 각각의 과정에 적용하였다.



[그림 1] 체계적 문헌 고찰의 절차와 방법

2. 분석 문헌의 선별

문헌 고찰을 위한 자료는 Deaton & Case의 저서 『DEATHS OF DESPAI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이 출간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생성된 절망사 관련 연구물이다. 해외 문헌은 Web of Science와 Google scholar 등 2개의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문헌은 RISS, KISS, DBpia 등 3개의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그림 2] 문헌 선택과정(PRISMA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분석대상 문헌의 선택과정은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 검색사이트에서 연구대상 문헌을 확인하였다. 검색 기준은 디턴과 케이스가 제시한 절망사를 관련 주제로 하여 연구된 논문이다. 단행본, 연구보고서, 포스터발표, 학술대회 논문(미출판 자료집 수록논문) 등 회색 문헌은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검색사이트에서 확인된 문헌들의 중복을 점검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내용이 선별기준에 미충족된 문헌을 배제하였는데, ‘deaths of despair’, ‘앵거슨 디턴과 앤 케이스’, ‘절망사’ 등 연구의 핵심 키워드에는 부합하지만, 연구 내용에 있어서 주제

관련성이 명시적이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절망사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를 선정하였다. 이때 약물남용, 알콜, 자살 등의 3대 요인을 다루지 않은 문헌들은 배제하였다. 최종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4단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재차 하였고 이에 최종 선택된 문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문헌의 선별과정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보고지침(Moher et al., 2010)을 준용하였고 과정은 [그림 2]로 도식화하였다.

3. 핵심 질문의 설정

체계적 문헌 고찰의 첫 단계는 핵심 질문(key question)의 설정이다. 핵심 질문은 연구 목표를 질문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다. 연구 목표는 기본적으로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세부적으로는 고찰된 문헌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독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실증적 연구의 분석 대상(data)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첫 번째 연구 목표를 절망사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두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목표는 절망사 연구가 국가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디턴과 케이스는 절망사를 미국 내 특정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디턴과 케이스의 연구 이후 절망사를 주제로 한 연구경

향성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국 단위의 단일한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는 사회적 이슈의 확장성이 지역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각의 국가별 특징이 과연 미국과 동일한 현상으로 분석되는지 혹은 개별 국가의 특징으로 분석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 목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분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디턴과 케이스는 ‘누적된 사회적 불리함’이 ‘저학력의 백인 중년 남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절망사라고 규정한다. 이에 다른 연구들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관계성의 발견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과성을 발견하고 분석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이에 절망사 연구의 동향을 다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핵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외 절망사 선행연구의 일반적 연구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내외 절망사 선행연구의 국가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국내외 절망사 선행연구의 주제별 특성은 어떠한가?

4 연구결과

1. 절망사 연구의 일반적 특성

절망사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다루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분석 대상인 절망사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일반적 경향을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물이 발표된 년도, 연구대상이 된 국가,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 구성과 숫자 등을 다루며 이와 같은 방식은 몇몇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황현정 외, 2023).

첫 번째로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1편, 2021년 9편, 2022년 14편, 2023년 17편으로 절망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시점이 2023년 11월인 것을 감안하면 2023년도는 17편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연구 동향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몇몇 절망사 연구들은 국가 간 데이터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이때 기준은 연구자의 국적이 아닌 분석 데이터의 특성이 어느 국가에 속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가별 분포는 미국 36편, 미국과 캐나다 비교 1편, 캐나다 1편, 브라질 1편, 영국 5편, 독일 1편, 스페인 1편 등으로 서구 지역은 46편이다. 아시아 권역은 이란 1편, 일본 1편, 한국·일본·대만 비교 1편으로 총 3편이다. 절망사 연구의 70.5%는 미국을 중심으로, 19.6%는 미국 이외 서구 국가, 아시아권 9.9%인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절망사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저자수를 살펴보면, 단독 연구 9편, 2인 연구 7편, 3인 연구 11편, 4인 연구 11편, 5인 이상 연구 13편으로 나타났다. 단독(17.6%)으로 연구하는 경우보다 다수의 연구진(82.4%)이 협력한 연구가 많았다. 가장 저자수가 많은 연구는 7명으로 의료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Friedman et al., 2020; Hodder et al., 2021)이다. 절망사의 주제가 알코올, 약물, 자살 등의 영역이므로 데이터의 접근이나 분석에 있어서 의료 영역을 비롯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절망사 연구의 경향성

1) 절망사 개념 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확장

지역적으로는 미국, 인구학적으로는 중년 백인, 사회적으로는 누적된 박탈, 임상적으로는 다양한 삶의 부정적 행동(알코올, 약물남용, 자살) 등을 배경으로 특정 집단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절망사는 기본 개념화되지만, 디턴과 케이스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절망사의 학문적 성격과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절망감과 고통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의 지속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수요와 공급 관계, 사망률과 교육의 밀접한 연결성, 절망의 정치 등을 추가적으로 보고한다(Case et al., 2022). 이는 전통적으로 계급 연대의 핵심이던 백인 중년 남성 집단과 정치세력

(민주당) 간의 계급 균열을 의미한다. 정치적 방향성은 크게 선회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상실하게 되며 이 집단에게 누적된 불리함의 사회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양적 측면으로 보면 오피오이드 관련 연구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알코올과 자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오피오이드 관련 연구들(Warinner et al., 2023; Ciccarone, 2021)에서는 오피오이드 판매 및 펜타닐의 과다복용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제약 회사의 마케팅 캠페인 활성화에 대한 비판, 의사의 과잉 처방을 지적한다. 절망사 연구에서 오피오이드의 심각성을 비판한 연구들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제재와 의료계의 도덕적 각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한다. 그 결과 오피오이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서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한 경고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연구(Shaver et al., 2021; Cano et al., 2023), 불법적인 펜타닐 사용 및 과다복용 등에 대해 ‘죽음을 향한 제4의 물결’이라는 비판적 주장(Ciccarone, 2021), HIV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Strathdee et al., 2020; Hodder et al., 2021; Gottschalk, 2023)를 비롯해 공중 보건 정책이 재앙적 수준으로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Gottschalk, 2023; King et al., 2022). 이러한 연구들은 절망사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미비를 심도있게 비판함은 물론 오피오이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절망사를 죽음의 전염병이라고 명명하여 급속한 경제 변화 및 약

화된 공공정책에서 패턴화되어 가는 절망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비판에 함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절망사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부족, 절망사의 3대 요인에 대한 접근 가능성, 집단에 대한 낙인, 사회적 비용, 미비한 정책 접근 등이다.

절망사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결책 제시를 위한 연구도 등장한다. 절망사의 3대 요인에 대한 낙인의 제거, 차별 정책의 전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 정신건강의 형평성 등을 다룬다(Beseran et al., 2022; Friedman et al., 2020; Jordan et al., 2020; Koob et al., 2021; Lang et al., 2023). 이는 절망사 확산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며 치료를 위한 의료적 접근,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에 대한 접근성 약화 등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효과성을 기대하도록 한다.

알코올과 자살 문제도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부각되어 알코올과 자살이 오피오이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다수 나타난다. 만성 통증을 비롯해 정신건강 장애 등의 문제가 오피오이드 사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자살로 연관되는 인과관계가 꾸준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Keyes et al., 2022; Pergolizzi et al., 2022; Maclean et al., 2020; Maclean et al., 2022; Martínez-Alés et al., 2022).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적 문화와 배경 역시 절망사의 중요 요인으로 설명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 또한 나타난다(Stack, 2021).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해결 방안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고 저

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알코올과 자살 문제 등의 감소, 기대수명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위기 등을 막아내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Harper et al., 2021).

이상 절망사의 기본 개념과 동일한 맥락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역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절망사가 미국 내 특정 인구집단이 겪게 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의 맥락 속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그 영향을 받는 과정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디턴과 케이스가 제시한 절망사의 개념과 내용적 측면을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된 영역에서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각각의 연구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사회적·정책적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화시키는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미국 사회에서 절망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2)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접근

절망사 연구는 북미 대륙을 벗어나 연구의 대상 지역을 확장시켜 나간다. 여타 국가에서는 연구의 양적 증가보다 질적 다양성을 보인다. 절망사의 원인인 약물, 알코올, 자살 문제 등의 사회적 경향성, 사회 요인과의 상관성, 공공보건정책과의 관계성 분석 등이 주를 이룬다. 영국은 절망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수의 결과물이 나타났고, 독일,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는 소수의 연구가 발견된다. 아시아에서는 소수이지

만 서구와는 다른 연구 경향성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해 있는 캐나다에서는 소득불평등, 정신건강 문제 등이 절망사와 연관 있음을 강조하지만, 알코올, 약물, 자살 등이 절망사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Benny et al., 2023; Guimarães et al., 2022).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알코올과 소득불평등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의 과다복용 역시 절망사와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서는 절망사가 공공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조사 및 절망사 관련 환자들의 데이터 베이스와 공적 데이터 간 연결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에서 절망사 연구가 활발한 국가는 영국이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의 지역적 구분 및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다양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오피오이드 오용에 의한 사망률 증가는 발견되지 않는 대신 마약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Allik et al., 2020). 이에 유전적 요인, 이민, 건강, 경제 정책 및 정치적 영역까지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절망사로 이어지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찾아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독특하다. 자살 및 약물 관련 사망률의 변화와 Brexit 투표율의 지역 간 분석을 시도하였다(Jonathan et al., 2020). 주목할 지점은 절망사가 증가할수록 브렉시트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경향성에 대해 절망사는 정치적 결과를 동반하는 사회문제라고 결론을 내린다. 아울러 인구집단 중 사망률이 높은 코호트 집단과 지역 간 유사성을 관찰한 연구(Walsh et al., 2021)에서는 45세 전후와 55세 전후의 인구집단에서 약물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45세 전후의 인구집단은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고 55세 전후의 인구집단은 남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에 의한 사망은 60~64세가 가장 높다. 이러한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미국은 누적된 불리함의 결과로 절망사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영국은 절망사의 결과로 집단이 정치적으로 보수성을 갖게 된다는 역인과성을 제시한다. 절망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문제론 바라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해결에 대한 방식 역시 구조적이고 정책적 접근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NHS(National Health Care System)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응급체계와 1·2차 진료체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협력하여 절망사에 대응할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Moriarty, 2019; Hiam et al., 2018).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절망사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오피오이드 사용에 있어서 만성 통증 환자의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환자를 병리화하거나 낙인 예방을 위한 인권 민감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Just, 2022), 절망사가 남성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중보건정책 강화에 대한 주장(Bárbara et al., 2023)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절망사 연구는 정부의 보건 정책 위기에 초점을 맞춘다. 2010년대 이후 국민 건강

의 질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기대수명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정치로 귀결시키면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반면 아시아 권역에서는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지만 절망사의 원인을 첫째, 오랜 경제 침체와 국가 차원의 대처 방식 문제 둘째, 저숙련 일자리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덧붙여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이 아시아의 정치경제 체제를 지배하는 와중에 절망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비판한다(Du 2023; Moeini et al., 2023; Miyamoto et al., 2022).

디텐이 미국의 중년 백인 남성으로 절망사를 개념화했다면, 이외의 국가에서는 여러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적 고유성, 대외 경제 관계,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념적 접근까지 다양한 내외부 요인을 바탕으로 절망사를 접근하였다. 원인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유사하지만 국가마다 지역마다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3) 인구사회학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대상 다양화

인구사회학적 접근은 개인과 집단을 성별, 연령, 인종, 학력, 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절망사 논의 핵심에 ‘사회경제적 변화가 저학력 중년 백인 남성이라는 특정 계층에서 발견된다’는 인구사회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한 인구집단의 특성이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사회현상으로 발견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인구사회학적 접근은 인구 통계

자료 및 특정 인구 집단의 특성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강하다(이상림, 2011). 개별적 혹은 개인적 사례들보다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며 이런 맥락에서 절망사도 동일한 방법론의 활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역과 직업, 인종을 비롯한 인구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연구에 의하면(Akee et al., 2023; Chang et al., 2023; Copeland et al., 2020; Fairman et al., 2022; Hawkins et al., 2021; Herzog, 2020; Remington, 2023; Sun et al., 2023; Simplicio, 2023; Terrell et al., 2022), 농촌 지역에서 절망사적 경향성이 파악된 바, 대중교통과 같은 인프라의 부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부재, 지역적 낙인감 등이 절망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제시되기도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과 절망사의 관계성도 증명되어 백인 중심이라는 인종적 특성을 벗어나기도 한다. 성적 소수자 그룹인 LGBTQ+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낙인, 내면화된 동성애 공포증, 고립 및 거부 등의 요인이 절망사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제시되며 파병된 경험을 가진 군인에서도 절망사 관련성이 보고된다. 반면 특정 지역에서는 인종, 민족, 빈곤 상태, 성별, 교육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개인의 생애주기를 추적한 종적 요인에서 자살 충동과 행동, 불법 약물 사용, 오피오이드 남용 등이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은 절망사가 특정한 지역, 연령 내지는 특정 집단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의 사망률 증가 추세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거시적인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상황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절망사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확장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4) 사회프로그램적 접근과 전통적 방식의 해결 방안 제시

사회적 프로그램은 부정적으로 규정된 이슈 혹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 당사자 개인을 위해 의도적 개입 혹은 계획된 전문적 행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집단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구성원과의 관계성 증진 및 재합류 등을 목표로 한다(이영석 외, 2000). 절망사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프로그램의 관점에 기반해 진행된 연구 등이 다수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심리학과 정신의학 등에 기반한 임상적 실천(Copeland et al., 2020; Rehder et al., 2021; Shanahan et al., 2021; Na et al., 2022), 공적 지원에 기반한 정책적 실천(Dow et al., 2020; Venkataramani et al., 2020), 종교적 접근(Seto, 2022)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절망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된 성격을 지닌다.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거나 생물학적 요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델화를 통해 관련 학문의 이론을 접목하고 학문적 정리를 시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절망이라는 특성상 개인의 심리변화를 생애사적 맥락에 맞추어 분석하거나 가족에 대한 부정적 경험 등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현재의 절망이라는 정

신건강의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종교적 관점으로 절망사를 탐색하는 연구에서도 나타나며 미국의 4대 핵심 종교인 주류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 흑인 개신교, 가톨릭 등이 지역사회 취약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정리하면, 사회프로그램적 접근을 통해 절망사를 연구한 사례에서는 알코올, 약물남용 등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낙인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개인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라는 전통적인 지역사회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디턴은 절망사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보기보다, 약물 또는 알코올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한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둘러싼 물질적·사회적 상황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을 때 혹은 더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체념이 지배될 때 절망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복리후생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일상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고 분석된다.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고용기회가 박탈되고 소득이 저하되며 가족관계가 약화되는 등 복합적 차원의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지 기반 불안정이 절망사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절망사 개념은 은퇴를 앞둔 중년 집단을

특정한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영향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절망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화, 누적된 박탈은 특정 인구집단만이 아닌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기에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절망사 개념은 국내외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되어 하나의 연구 경향성을 형성한다. 절망사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망사에 대한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되도록 많은 범위의 연구를 검색하되 명확하게 정해진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선행연구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글 학술검색, Web of Science, RISS, KISS, DBpia와 같은 다양한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5단계의 추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9편의 연구문헌을 선택하였다. 설정된 핵심 질문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절망사 선행연구의 일반적 연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절망사와 관련된 문헌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절망사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 이외의 서구 국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아시아 권역에서는 절망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소수의 절망사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절망사 연구는 단독으로 진행되기보다 다수의 공동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절망사를 구성하는 요인인 알코올, 약물, 자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의 접근성 및 전문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주제와 원인의 다양성이 공동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 문제 2> 절망사 선행연구의 국가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미국 내에서는 디턴과 케이스가 제시한 절망사의 구성과 개념에 대한 토착화가 1차적으로 진행되고 학문 영역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지역별, 인종별 특성화를 파악하여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절망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에 집중한 프로그램 방식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절망사에 대한 개념을 디턴의 정의에 따르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국가 및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대안이 주로 제시된다. 한국은 아직 절망사 개념에 학문적 연구가 시도되지 못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절망사의 개념을 소개하려는 시도가 소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별의 절망사적 사회현상은 이슈화되어 있으나 통합된 접근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 문제 3> 절망사 선행연구의 주제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지역, 연령대, 인종, 민족, 성별,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 연구하는 경향성들이 점차 증가한다. 절망사 논의는 ‘저학력 중년 백인 남성’이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인구학적 특징이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사회현상으로 발현된다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절망사의 연구대상을 확장시키고 있다. 청년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백인 중년 남성의 중심에서 흑

인과 아메리카 인디언을 포함한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 노동자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성 소수자 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아우르는 연구대상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절망사를 겪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 계층 등에 대해 사회적 프로그램의 개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절망사 연구의 학문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의학적 관점을 비롯해 종교생태학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 정책적 관점 등 다양한 모델이 제안된다. 아울러 임상전문가, 종교인, 정책당국자, 정치가 등 전문가 그룹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영역 확장 이면에는 디턴과 케이스의 절망사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후속 연구들이 뒤따르는 절망사 관점이 백인 주류 집단의 시각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흑인과 이민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통을 절망사적 접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절망사 연구는 개인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절망이 작용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실증적 분석들이 제시된다. 시장 시스템이 공동체의 기대수명을 향상시키는 효율적 기제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절망사의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많은 연구들이 동의한다. 신체적 통증, 정신적 고통,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을 완화시키고자 음주, 약물 등을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살에도 핵

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오남용이 특정 계층과 집단, 지역 등에서 사망과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실증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간접적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정책적인 접근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약물중독 문제를 개인에 대한 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강하지만, 독일은 건강보험시스템과 의약품 관련 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경향성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사망률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강상준 외, 2022). 개인과 가족, 집단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은 원인으로서의 절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절망사에도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절망사에 대한 개념과 접근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적·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논의점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절망사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절망사 연구에 있어서 디턴과 케이스가 제시하는 약물남용과 알코올, 자살에만 한정시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과로사와 고독사, 산재사와 같은 사회적 죽음으로 명명된 것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경향신문, 23/07/04, 27). 그리고 절망사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으로 전문적 기술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임상적 접근에 강조점을 둘 것인지, 사회적 취약계층, 시장화와 양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에 강조점을 둘 것인지 등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구조가 개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향

을 미치는 인과성이 나타나고 있음이 실증된 이상 정책적 대응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절망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책임성과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deaths of despair’, ‘앵거슨 디턴과 앤 케이스’, ‘절망사’라는 한정된 용어를 바탕으로 문헌을 검색하고 분석하였기에 절망사 관련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절망사 개념 및 주제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단어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절망사를 다룬 연구의 초기 논의에 한정되고 있다. 절망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와 관련 개념들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비교하는 등 보다 확대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절망사의 초반 연구에 해당되는 학문적 상황에서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절망사 관련 이론적 동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리하고 소개하였기에 국내 절망사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논문 투고 일: 2024.07.30.
- 심사 완료 일: 2024.08.14.
- 게재 확정 일: 2024.08.16.

참고문헌

- 강상준·권진·박수빈·이성철 (2022). 『한국의 절망사 연구 :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 대통령직속 기획위원회.
- 강은영·조소연 (2014).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I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50.
- 강휘원 (2010).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탐색: 교육, 복지, 언어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1호, 51-71.
- 김관욱 (2023). “한국 산재사, 일본 과로사, 미국 절망사.” 『경향신문』 (7월 4일), 27.
- 김대권 (2023). “마약범죄의 한계와 효율적 통제를 위한 제언.”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2호, 1-14.
- 김수영·박지은·서현주·서혜선·손희정·신채민·이윤재·장보형 (2011).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 김정숙·선민정·천유진 (2023). “경기도 자살사망자의 자살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개년(2016~2020년) 자살사망자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동서간호학연구지』 제29권 2호, 129-140.
- 김진주·현명선 (2023).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재발경험: Q 방법론적 접근.” 『동서간호학연구지』 제29권 2호, 172-184.
- 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백서』
- 민보영 (2021). “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 관리 부실.” 『한의신문』 (10월 18일).
- 박성수 (2023). “마약류 범죄의 정책변화와 사회적 방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3권 3호, 39-66.

- 복지부 (2021). 『2021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손해용 (2022). “미국 뿔친 ‘절망사’, 한국도 위험수위.” 『중앙일보』 (7월 20일), 28.
- 양지호 (2021). “한 해 16만명이 절망사… 과연 미국만의 문제인가.” 『조선일보』 (7월 10일), 18.
- 이상림 (2011). “이주와 인구: 인구학적 관점의 설명.”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이민정책연구원.
- 이영석·이세나 (2000).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정개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1권 2호, 147-156.
- 정진석·강보선 (2023).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58권 1호, 141-194.
- 홍성국 (2018).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 서울: 메치미디어.
- 황현정 (2023). “국내외 AI 리터러시의 연구 동향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9권 3호, 135-164.
- Akee, R., Feir, D. L., Gorzig, M. M., & Myers Jr, S. (2023). Native American “Deaths of Despair” and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100880*.
- Allik, M., Brown, D., Dundas, R., & Leyland, A. H. (2020). Deaths of despair: cause-specific mortality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ause-specific mortality among young men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9(1)*, 1-10.
- Bárbara Piñeiro, Jeroen J A Spijker, Sergi Trias-Llimós, Amand Blanes Llorens, Iñaki Permanyer. (2023). Trends in cause-specific mortality: deaths of despair in Spain, 1980-2019.

- Becchetti, L., & Conzo, G. (2022). Preferences for climate change-related fiscal policies in European countries: drivers and seasonal effects. *Economia Politica*, 39(3), 1083-1113.
- Benny, C., Siddiqi, A., & Pabayo, R. (2023). Income inequality and ‘hospitalisations of despair’ in Canada: a study on longitudinal, population-based data.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8(1), 33-39.
- Beseran, E., Pericàs, J. M., Cash-Gibson, L., Ventura-Cots, M., Porter, K. M. P., & Benach, J. (2022). Deaths of despair: a scoping review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drug overdose, alcohol-related liver disease and suicid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9), 12395.
- Cano, M., Oh, S., Osborn, P., Olowolaju, S. A., Sanchez, A., Kim, Y., & Moreno, A. C. (2023). County-level predictors of US drug overdose mortality: a systematic review.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42, 109714.
- Case, A., & Deaton, A. (2015). Rising morbidity and mortality in midlife among white non-Hispanic Americans in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49), 15078-15083.
- Case, A., & Deaton, A. (2017).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7, 397.
- Case, A., & Deaton, A. (2020). *Deaths of Despai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se, A., & Deaton, A. (2022). The great divide: education, despair, and death. *Annual Review of Economics*, 14, 1-21.
- Chang, J. S., Saxton, K., Bright, G., Jorden, M. A., Gutierrez, A., & Xia, K. (2023). Deaths of profound despair: A retrospective

- cohort study of mortality among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PLoS one*, 18(2), e0281912.
- Chase, E., & Walker, R. (2013). The co-construction of shame in the context of poverty: Beyond a threat to the social bond. *Sociology*, 47(4), 739-754.
- Ciccarone, D. (2021). The rise of illicit fentanyl, stimulants and the fourth wave of the opioid overdose crisi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4(4), 344.
- Copeland, W. E., Gaydos, L., Hill, S. N., Godwin, J., Harris, K. M., Costello, E. J., & Shanahan, L. (2020). Associations of despair with suicidality and substance misuse among young adults. *JAMA network open*, 3(6), e208627-e208627.
- Deaton, A.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w, W. H., Godøy, A., Lowenstein, C., & Reich, M. (2020). Can labor market policies reduce deaths of despair?. *Journal of health economics*, 74, 102372.
- Du, H. (2023). Death of Despair and the Destruction of Neoliberalism in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Democratization, and Social Pressure in Japa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Sociology and Ethnology*, 5(9), 65-70.
- Fairman, K. A., & Buckley, K. (2022). Association of potential for deaths of despair with age and military service era. *Military medicine*, 187(3-4), 453-463.
- Ford, E. S., Ajani, U. A., Croft, J. B., Critchley, J. A., Labarthe, D. R., Kottke, T. E., ... & Capewell, S. (2007). Explaining the decrease in US deaths from coronary disease, 1980–2000.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6(23), 2388-2398.

- Friedman, S. R., Krawczyk, N., Perlman, D. C., Mateu-Gelabert, P., Ompad, D. C., Hamilton, L., ... & Cerdá, M. (2020). The opioid/overdose crisis as a dialectics of pain, despair, and one-sided struggle.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540423.
- Gottschalk, M. (2023). The opioid crisis: the war on drugs is over. Long live the war on drugs.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6, 363-398.
- Guimarães, R. M., & Meira, K. C. (2022). *The Role of Race in Deaths of Despair in Brazil: is It a White People Problem?*.
- Harper, S., Riddell, C. A., & King, N. B. (2021). Declining life expectancy in the United States: missing the trees for the forest.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42, 381-403.
- Hawkins, D., Punnett, L., Davis, L., & Kriebel, D. (2021). The contribution of occupation-specific factors to the deaths of despair, Massachusetts, 2005–2015.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65(7), 819-832.
- Herzog, N. (2020). “Deaths of Despair”: A case study of health and political outcomes in two rural Pennsylvanian counties since 2016. *Politique americaine*, (1), 37-58.
- Hiam, L., Harrison, D., McKee, M., & Dorling, D. (2018). *Why is life expectancy in England and Wales ‘stalling’?*.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 Hodder, S. L., Feinberg, J., Strathdee, S. A., Shoptaw, S., Altice, F. L., Ortenzio, L., & Beyrer, C. (2021). The opioid crisis and HIV in the USA: deadly synergies. *The Lancet*, 397(10279), 1139-1150.
- Jonathan Koltai, Francesco Maria Varchetta, Martin McKee, and David Stuckler. (2020). *Deaths of Despair and Brexit Votes:*

Cross-Local Authority Statistical Analysis in England and Wales.

- Jordan, A., Mathis, M. L., & Isom, J. (2020). Achieving mental health equity: addictions. *Psychiatric Clinics*, 43(3), 487-500.
- Joseph Friedman, PhD; Helena Hansen, MD, PhD; and Joseph P. Gone. (2023). What Does the ‘Deaths of Despair’ Narrative Leave Out?. *U Magazine Spring 2023 - Public Health Update*
- Just, J., Petzke, F., Scherbaum, N., Radbruch, L., Weckbecker, K., & Häuser, W. (2022). Critical discussion of new data regarding prevalence of opioid use disorder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in Germany. *Der Schmerz*, 1-6.
- Keyes, K. M., Rutherford, C., & Smith, G. S. (2022). Alcohol-Induced Death in the USA from 1999 to 2020: a Comparison of Age-Period-Cohort Methods. *Current Epidemiology Reports*, 9(3), 161-174.
- King, L., Scheiring, G., & Nosrati, E. (2022). Deaths of despair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8, 299-317.
- Koob, G. F., Powell, P., & White, A. (2020). Addiction as a coping response: hyperkatifeia, deaths of despair, and COVID-19.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11), 1031-1037.
- Lang, J., Mendenhall, E., & Koon, A. D. (2023). Disentangling opioids-related overdose syndemic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119, 104152.
- Maclean, J. C., Mallatt, J., Ruhm, C. J., & Simon, K. (2020). *Economic studies on the opioid crisis: A review.*
- Maclean, J. C., Mallatt, J., Ruhm, C. J., & Simon, K. (2022). The opioid crisis, health, healthcare, and crime: A review of quasi-experimental economic studies. *The ANNALS of the*

-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703(1), 15-49.
- Martínez-Alés, G., Jiang, T., Keyes, K. M., & Gradus, J. L. (2022). The recent rise of suicide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43, 99-116.
- Miyamoto, Y., & Ryff, C. D. (2022). Culture and health: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1.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64(2), 90-108.
- Moeini, M., & Pourreza, A. (2023). Deaths of Despair in Midlife Among Iranians: The Cumulative Effect of a Long Economic Stagnation.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Iran*, 17(34), 381-386.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 G., & Prisma Group. (2010).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8(5), 336-341.
- Moriarty, K. J. (2019). Alcohol care teams: where are we now?. *Frontline gastroenterology*, flgastro-2019.
- Na, P. J., Stefanovics, E. A., Rhee, T. G., & Rosenheck, R. A. (2022). “Lives of despair” at risk for “deaths of despair”: tracking an under-recognized, vulnerable popula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7(6), 1123-1134.
- Olshansky, S. J., Antonucci, T., Berkman, L., Binstock, R. H., Boersch-Supan, A., Cacioppo, J. T., ... & Rowe, J. (2012).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due to race and educational differences are widening, and many may not catch up. *Health affairs*, 31(8), 1803-1813.
- Pergolizzi Jr, J. V., Magnusson, P., LeQuang, J. A., Colucci, R., Breve, F., & Varrassi, G. (2022). Suicide, opioids, chronic pain,

- and mental health disorders: a narrative review.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1(1), 15-19.
- Rehder, K., Lusk, J., & Chen, J. I. (2021). Deaths of despair: Conceptual and clinical implication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8(1), 40-52.
- Remington, T. F. (2023). The Covid-19 Pandemic and “Rising Deaths of Despair” in the United States. In *Covid-19 Pandemic: Problems Arising in Health and Social Policy* (pp. 57-71). Singapore: Springer Nature Singapore.
- Seto, C. (2022). Saving Grace? Religious ecology and deaths of despair. *Social Science & Medicine*, 293, 114642.
- Shanahan, L., & Copeland, W. E. (2021). Psychiatry and deaths of despair. *JAMA psychiatry*, 78(7), 695-696.
- Shaver, C. S., Johnson, J. A., Greenhill, R. G., & Nadimidla, S. (2021). Comparative analysis of state level health policy support for opioid abuse mitigation in rural America.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44(2), 137-161.
- Simplicio, M. A. (2023).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Deaths of Despair: Trends from 1999 to 2020*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Stack, S. (2021). Contributing factors to suicid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Preventive medicine*, 152, 106498.
- Strathdee, S. A., Kuo, I., El-Bassel, N., Hodder, S., Smith, L. R., & Springer, S. A. (2020). Preventing HIV outbreaks among people who inject drugs in the United States: plus ça change, plus ça même chose. *AIDS (London, England)*, 34(14), 1997.
- Sun, P. C., Lawlor, E. F., McBride, T. D., Morrow-Howell, N., & Park, S. (2023). Deaths of despair and population aging in

- Missouri.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66(4), 491-511.
- Terrell, K. R., Zeglin, R. J., Palmer, R. E., Niemela, D. R., & Quinn, N. (2022). The Tsunamic Model of LGBTQ+ Deaths of Despair: a systemic review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deaths of despair among LGBTQ+ people. *Journal of homosexuality*, 69(13), 2167-2187.
- Venkataramani, A. S., & Tsai, A. C. (2020). Housing, housing policy, and deaths of despair. *Health services research*, 55(1), 5.
- Walsh, D., McCartney, G., Minton, J., Parkinson, J., Shipton, D., & Whyte, B. (2021). Deaths from 'diseases of despair' in Britain: comparing suicide, alcohol-related and drug-related mortality for birth cohorts in Scotland, England and Wales, and selected citie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5(12), 1195-1201.
- Warinner, C., Parker, L. F., Shapiro, F., & Jowett, N. (2023). Evidence-based perioperative opioid-sparing techniques during the United States opioid crisis. *Current Opinion in Otolaryngology & Head and Neck Surgery*, 31(4), 231-237.

A Study on the Concept and Research Trends of Deaths of Despair

Kang, Sangjun

Dept. of Social Welfare

KNOU

Deaths of despair is the definition of a social phenomenon in which negative behaviors such as alcoholism, drug abuse, and suicide appear in low-educated middle-aged white men against the background of accumulated deprivation. Social concerns are gradually increasing that the ‘death of despair phenomenon’ that is occurring in American society may also appear in Korean society. Therefore, it is important at this point to examine it by applying it to the Korean context. In Korea, research on suicide, alcohol, and drug misuse is being conducted, but it is conducted separately in each area and is mostly focused only in the context of personal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s much data as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research on deaths of despair and reveal its trends and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method and a total of 49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efforts to recognize deaths of despair as a social problem and bring them to the social discussion table, as well as efforts to prove them academically, are needed in earnest.

| **Key Words** | alcohol, drug abuse, suicid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